

# 성인 농인 문해교육 체계 설립을 위한 해석적 연구\*

윤석민 · 고아라(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목 차〉

- |                    |             |
|--------------------|-------------|
| 1.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자료 분석 결과 |
| 2. 조사 설계           | 4. 결론       |

## 1.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농인은 수화나 여타의 몸짓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농인은 농인 집단 안에서의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 한편 소통 방식이 다른 청인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인 또한 청인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국민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농인과 청인의 소통 및 그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인도 한국 수화를 넓은 의미의 한국어로 인식하고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농인 역시 청인과의 의사소통(갈증<sup>1)</sup>) 해결을 위하여 청인의 소통 방식을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반기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국립국어원, 2013)”에 따르면 농인 271명 중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대답이 162명(60%)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21명(8%)보다 현저하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필요성은 농인에게도 한국어 문해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인에 대한 한국어 문해력 교육은 주로 학교를 통해 농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성인 농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sup>2)</sup> 이 때문에 농인 성인의 한국어 문해력은 현재 문해력 교육을 받고 있는 농인 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을 보자.

(1) 학력별 문해력 조사 점수 분포<sup>3)</sup>



위 (1)을 보면 총 20점 만점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3.77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지만 중졸 학력의 성인은 4.36점밖에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과 고졸 및 대졸 성인의 문해력 격차도 중학교 경우만큼은 아니지만 졸업 후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는 농인 학생에 비해 성인 농인의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인의 문해력은 교육의 지속성 및 지속 기간과 큰 관련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인의 경우, 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한국어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차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농인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계 설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 이루어지는 성인 대상 문해교

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농인들 스스로 국어 문해력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 외(2014a),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이 그래프의 출처는 ‘국립국어원 외(2014a),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이다.

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의 지침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수업을 전문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기초자료화함으로써 객관적인 모습을 확인할 것인데 이는 현재의 상황은 물론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농인을 위한 한국어 문해력 교육은 모어보다는 이중언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과 성인 및 농인이라는 교육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인 문해교육은 국어교육보다는 한국어교육이라는 데 바탕하여 특히 성인 농인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의 지향점은 반드시 수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것도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 2. 조사 설계<sup>4)</sup>

본 연구는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주 대상인 성인 농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에 대한 탐색과 이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반적 문해교육과 달리 특정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중시하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sup>5)</sup>

---

4) 본고의 연구와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외(2014b),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및 문해교육 지원 체계 기초 조사’ 중 “문해교육 지원 체계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연구 대상 기관 및 조사 방식은 해당 연구와 동일하게 추진하였다. 물론 그 경우에도 조사 내용 및 분석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적인 해석은 새로운 것이다.

5) 본고는 ‘성인 농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인 전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결론을 추구하는 것은 본고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본고는 농인 대상 문해교육의 일반론적인 원칙을 찾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런 목표의 달성에는, 전체적인 원리 추출에 효과적인 양적 연구보다는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우선하는 질적 연구가 효과적이다.

## 2.1. 심층면담 조사

농인 성인을 위한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조사의 출발점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다. 이들의 경험적 증거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의 역점 요소를 결정하고 효과적인 분석 자료의 도출 등 실제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도 갖는다.

본 조사에서도 현장에서 다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성인 농인의 특수성, 바람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의 요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1.1. 면담 대상

일차적인 연구 대상은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국립국어원, 2014a)에서 문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었다. 또한 심층면담 조사가 수업관찰 조사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관찰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하였다.<sup>6)</sup> 결과적으로 선정된 심층면담 대상자는 아래 표 (2)와 같다.<sup>7)</sup>

#### (2) 심층면담 조사 대상

농인 문해교육 기관 (6개 기관, 10명)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김○○, 정○)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김○○)
홍천군 수화통역센터 (김○○, 강○○)	서울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고○○, 박○○)
청음회관 (손○○, 박○○)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김○○)

### 2.1.2. 면담 설문지

심층면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용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층면담용

6) 수업관찰 조사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2.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7) 이곳의 대상자는 “수화 기반 문해교육 지원 체계 조사 및 설계(국립국어원, 2014b)의 면담 대상자 가운데 청인 대상 성인 문해교육 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양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문항을 작성하였다.<sup>8)</sup> 설문지의 문항별 내용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 심층면담 설문지 내용 구성<sup>9)</sup>

교육 프로그램	<input type="radio"/> 교육 시작 연도 <input checked="" type="radio"/> <b>교육 시작 동기</b> <input type="radio"/> 교육 목표 <input type="radio"/> 교육 기간 <input type="radio"/> 수업료 <input type="radio"/> 수업 시간표 <input type="radio"/> 교과과정 <input type="radio"/> 강의안 <input type="radio"/> 프로그램 구성 근거 <input type="radio"/> 기대 효과 <input checked="" type="radio"/> <b>개선 사항</b>	교재	<input type="radio"/> 사용 교재 <input type="radio"/> 참고 교재 <input type="radio"/> 교재 선정 근거 <input type="radio"/> 기대 효과 <input checked="" type="radio"/> <b>개선 사항</b>
교구	<input type="radio"/> 사용 교구 <input type="radio"/> 기대 효과 <input checked="" type="radio"/> <b>개선 사항</b>	학습자/학급	<input type="radio"/> 인원수 <input checked="" type="radio"/> <b>연령층</b> <input type="radio"/> 학급 수 <input type="radio"/> 학급 편성 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b>학습자 요구 사항</b>
교사	<input type="radio"/> 인원수 <input checked="" type="radio"/> <b>선발 기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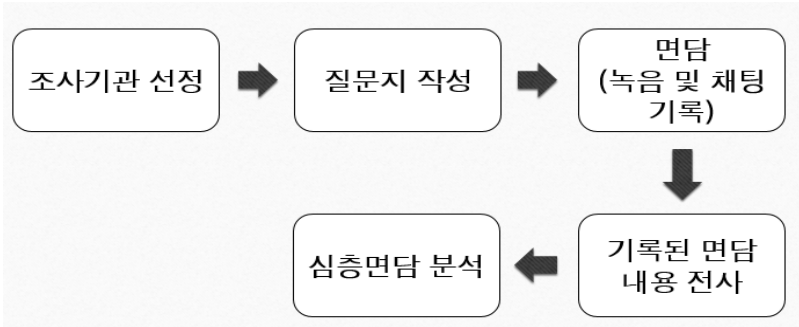
위 (3)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은 본고의 분석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진 항목들이다. 실제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앞서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변수가 가지는 특성은 3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2.1.3. 심층면담 절차

심층면담의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4)와 같다.

- 8) 문항은 국립국어원 외(2014a)의 심층면담 설문지와 기관 조사 설문지 및 최권진·최윤미(2010)을 참조하였다.
- 9) 이 표는 “수화 기반 문해교육 지원 체계 조사 및 설계(국립국어원 외, 2014b)”에서 제시한 심층면담 설문지 내용 구성을 인용한 것이나 본고에서는 소책자와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고에서 주로 다룬 부분에 대하여서는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해 두었다.

#### (4) 심층 면담 연구 절차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한 것은 이미 앞(2.1.1. 및 2.1.2.)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 다음 심층면담 조사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녹음을 한 후 이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화하였다.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 사전에 해당 면담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약속된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였는데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필요할 경우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면담한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나중 전사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면담 장소에서도 실시간으로 요약 전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직접 또는 온라인 면담 등을 통하여 보강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사된 자료는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하였다. 이들은 수업관찰 조사 자료와 함께 성인 농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 2.2. 수업관찰 조사

수업관찰 조사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업관찰 조사는 참여관찰 조사<sup>10)</sup>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의 수업관찰 조사는 조사자가 학습자 역할이나 교수자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현장을 녹화하거나 직접 참관하여 수업의 흐름이나 학습자들의 반응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11)</sup> 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업관찰 조사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자연스러운 성인 농인 문해교육 현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 효과적인 분석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현장에서 성인 농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교실 상황 및 학습 여건과 교육의 상관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교수자에 따른 수업의 진행상 차이와 교수 방법 및 교수 내용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2.2.1. 관찰 대상

수업관찰 조사는 우선 심층면담 조사를 진행했던 기관 중에서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수업을 중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농인의 특수성이 문해능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급수별 문해교육 수업을 모두 참관하여 자료화하였다.

또한 성인 농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인의 수업 상황도 조사하였다. 또한 청인의 문해교육은 문맹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차원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상태이므로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하여 시사할 수 있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수업관찰 조사의 대상을 그 특징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 (5)와 같다.

---

10) 참여관찰 조사란 조사자가 피조사자들 사이에 참석하여 피조사자들을 관찰하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11) 다소 소극적인 방법을 조사를 한 이유는 수업 시간 참여라는 특수 사항 때문이다. 수업 시간 자체에 다른 변화가 있다면 평상시의 수업과 달라져서 조사 목적의 본질에 맞지 않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수업관찰 조사 대상 및 대상의 특징

차수	일시	장소	교수자	교재명	학생수	수업 시간	비고
1차	20140826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농인	배움의 나무	3	50분	중급
2차	20140827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청인	6세 한글	5	60분	초급
3차	20140827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청인	대구아름다운학교 국어교재	5	60분	중급
4차	20140916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농인	소망의 나무	9	50분	초급
5차	20140925	팔복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청인	배움의 나무	9	120분	청인 문해
6차	20141006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농인	6세 한글익힘	5	90분	초급
7차	20141021	청음회관	청인	한글 (유아용 한글교재)	6	60분	초급

위 (5)의 대상 기관 중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경우 중급 수업 녹화만 진행하였다. 또한 청인 문해교육 기관은 비교 대상으로 한 곳만 선정하였는데 이곳은 성인 청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었다.

### 2.2.2. 관찰 일지

문해교육 현장의 수업관찰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된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동일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관찰 일지의 구성을 위해 제2언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수업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특히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근본적 목적이 한국어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이므로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관찰 일지 작성은 ‘COLT(Communicative Orientation of Language Teaching)’의 틀을 기본으로 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2언어 교육과 시각언어인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

12) 전영주(2010:343)에 따르면 COLT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 일지이다.

인 농인 교육의 차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일지는 다음 (6)과 같다.

(6) 관찰 일지 구성 내용

기본 사항	㉠ 관찰 장소 ㉡ 관찰 일시 ㉢ 관찰 교사 ㉣ <b>관찰 급수</b> ㉤ 학생 수 ㉥ <b>학생 인적 정보 (성/연령)</b>	학습 조건	㉦ 강의실 ㉧ <b>교사 인원</b> ㉨ <b>보조 교사 여부</b> ㉩ <b>교재 정보</b>
교사	㉪ 학습 목표 ㉫ 수업 활동 배분 ㉬ 도입 제시 방법 ㉭ 마무리 제시 방법 ㉮ 수업 중 과제 제시 여부 ㉯ 수업 중 과제 유형 ㉺ 수업 후 과제 제시 여부 ㉻ 수업 후 과제 유형 ㉼ 학습자를 위한 질문 시간 여부 ㉽ 질문의 유형 ㉾ 모듈활동 여부 ㉿ <b>언어 기능에 따른 학습 활동 유형</b> ㊀ 활용 기자의 종류	학습자	㉦ 교사 설명 이해 정도 ㉧ <b>모어(수화) 구사 능력</b> ㉨ 자발적인 질문 여부 ㉩ 교사에 대한 반응 ㉪ 활동 내용에 대한 정확성
기타	㉫ 특이 사항 ㉬ 여타의 관찰 사항		

위 (6)을 보면 관찰 대상이 되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진행 중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조건, 교사, 학습자에 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확보된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수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가능해진다.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밑줄 친 부분의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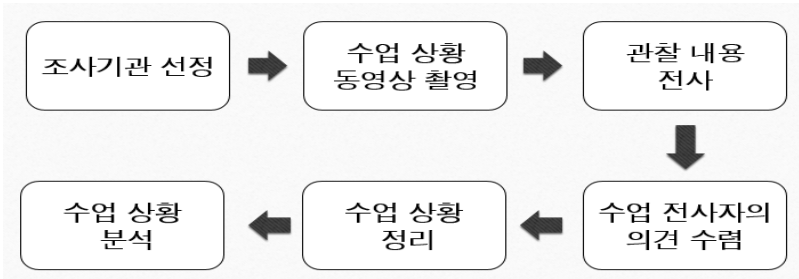
### 2.2.3. 수업관찰 절차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실의 수업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전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13)</sup>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인 농인의 수업관찰 조사 절차는 다음 (7)로 제시할 수 있다.

(7) 성인 농인 수업관찰 조사를 위한 연구 절차



성인 농인 수업관찰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농인인 경우가 많아<sup>14)</sup> 수업이 전반으로 수화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동영상의 내용을 수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교실 상황의 특이사항이나 수업 관련 제언 등을 제시할 경우 이 역시 수업관찰의 자료로 간주하였다. 그런 다음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상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수업 상황 분석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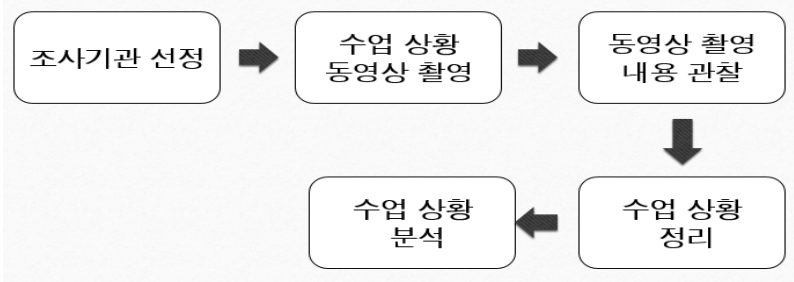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 농인에 맞는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로 청인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수업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청인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수업관찰은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인 농인의 수업관찰 방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절차를 보이면 아래 (8)과 같다.

13) 조사자가 교수자나 학습자로 참여하지 않고 교실 수업을 참관하였다. 다만 수업관찰 조사 중 학습자나 교수자가 수업관찰과 관련하여 조사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반응하였다.

14) 교수자가 농인이 아니더라도 수업은 보통 수화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학습자들이 수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음성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8) 성인 청인 수업관찰 조사를 위한 연구 절차



위 (8)의 절차를 (7)과 비교하면 ‘관찰내용의 전사’와 ‘수업 전사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는 것이 다르다. 성인 청인의 수업관찰에서는 수업이 음성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직접 동영상을 관찰하면서 수업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업 상황 정리는 성인 농인의 경우와 동일한 관찰일지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일관된 비교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관찰일지를 바탕으로 수업 상황을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결과<sup>15)</sup>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수행한 두 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성인 농인의 언어습득 특성과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제시는 무엇보다 이중언어 교육론<sup>16)</sup>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것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농인에게 있어 한국어는 모어(native-language)라기보다는 외국어에 더 가깝다.<sup>17)</sup> 일반적으로 외

15) 본고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외(2014b)의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체계 기초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해당 결과 도출의 과정을 심화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이중 언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운기·김병하(2005)에서는 이중언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의 제1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원어민의 문화권에서 습득되는 제2언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농아동에 대한 음성언어의 문자 지도는 제2언어 지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7) 물론 한국 농인과 음성 한국어의 관계가 일반적인 청인의 경우에 얘기되는 제2외국어 관계

국어라 하면 제2언어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어를 습득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농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의하여 수화와 같은 시각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한국어를 말하는 청인과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농인의 특성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해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2언어 습득은 이중언어 교육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성인 농인의 경우, 학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당연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함) 아예 자신의 제1언어 즉 수화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한국어 문해력 향상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문해교육은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제1언어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수화와 한국어의 입력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특성 역시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이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 3.1. 성인 농인의 언어습득 특성

이중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관여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성인 농인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습득 시기,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네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sup>18)</sup>

#### 3.1.1. 언어습득 시기(나이)

본고에서 말하는 언어습득 시기는 심층면담을 조사한 시기의 나이, 즉 제2

---

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동질감이 없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달리 한국 농인은 이미 한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농인에 있어 한국어는 제2외국어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공용어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18) 이 밖에도 학습전략이나 학습 유형 및 제1언어와 제2언어의 관계 등이 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립국어원 외 (2014b)의 '수화기반 문해교육 지원체계 조사 및 설계' 부분의 제3장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나이를 말한다. 성인 농인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학습자들의 습득 당시 나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다음 자료를 보자.

(9) ㄱ. 조사자: 인원과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피조사자: 다섯 명이구요. 연령층은 50대, 60대 정도 돼요. 초급은 10분이구요. 40대에서 70대 있어요.

<제1차 심층면담 전사(완주군 수화통역센터) 중>

ㄴ. 피조사자: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할머니들 하고 제가 정말 무슨 게임…….

<제2차 심층면담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

ㄷ. 피조사자: …… 왜냐하면 저희 연령층이 젊은 편이 아니라 연령층이 높으세요.

<제4차 심층면담 전사(홍천군 수화통역센터) 중>

ㄹ. 피조사자: 평균연령 50대 정도이고 대충 4~60대 사입니다.

<제6-1차 심층면담 전사(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중>

ㅁ. 피조사자: …… 그 중 하나가 도전문맹 한글교육.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분들이 대부분이고 60대 후반에서 7~80대? …….

<제8차 심층면담 전사(청음회관) 중>

위 (9)에서 보이듯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행해지는 농인 성인의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는 40대~80대로 평균 50대~60대가 많다. 성인 중에서도 고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흥수 외(2007)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제2언어의 습득 시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언어나 제2언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흔히 학습자들의 습득 시기를 크게 사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고려하면 성인 농인 학습자의 경우, 제2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나이에 비하여 아주 많이 웃돌고 있다.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언어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나이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sup>19)</sup>

19) 이밖에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나이에 비해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어린 아동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성인 그 중에서도 노년층이

### 3.1.2. 인지적 요인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성격과 인지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인지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정적인 요인과 생리적인 요인이 혼합되어 학습 유형을 만든다. 인지적 요인은 습득하는 언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흔히 제2언어 습득이 학습자의 적성<sup>20)</sup>에 맞는지 여부를 다룬다. 언어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제2언어를 인지하는지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분석되는 학습자 요인이다. 성인 농인의 문해교육 현장에서 성인 농인들이 한국어를 인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층면담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10) ㄱ. 피조사자: 수화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관심이 없으면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그림을 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ㄴ. 피조사자: …… 아예 수맹이신 분들 많으니까 ……  
〈제1차 심층면담 전사(완주군 수화통역센터) 중〉

위 (10ㄱ)의 밑줄 친 ‘그림’을 보면 학습자인 성인 농인에게 한국어를 인지하는 정도가 극단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그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제1언어조차 분명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현재 성인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이 수화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사정이 매우 다른 것이다. 이들은 제1언어를 이용하여 제2언어를 인지하는 일반적인 제2언어 습득 방식과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문해교육에서는 더욱 다양한 시각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20) 언어습득을 위한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로 Carroll&Sapon(1959)이 개발한 현대 언어 적성 검사(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MLAT)를 비롯하여 Pimsleur의 적성검사전지(The Pimsleur Language Aptitude Battery: PLAB) 등이 있다. 성인 농인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적성 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본 논의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 또한 이들 언어 적성 검사들은 음운 및 소리에 관련한 내용이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농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언어 적성 검증이라 할 수 없다. 농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마련된다면 농인의 언어 적성 수준을 고려한 문해교육이 무엇인지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제1언어인 수화 역시 시각적 자료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수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성인 농인 학습자들은 수화를 사용해 설명하더라도, 수화 대신 상황이나 상황 묘사 등에 대한 1차적 시각 정보를 통해 제2언어와 함께 제1언어인 수화를 병행 습득하는 인지 행태를 보인다.

실제 총 6차례 이루어진 수업관찰 조사에서, 특히 초급반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 등의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급반의 수업은 그림 사진 등의 실제 시각 자료를 제시한 후, 수화 설명과 함께 수화 단어를 제시하는 식이었다. 한국어 단어는 그 다음 단계로 제시하여 그 문자를 인지하고 직접 써 보고 수화로 말하기 등의 과제화 함께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인 수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분량의 단어를 반복·연습하는 모습이 기록되었다.<sup>21)</sup>

이러한 성인 농인 학습자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학습자 유형인 기억력 중심의 학습자나 분석적 학습자 및 문법이해와 기억력을 모두 활용하는 학습자<sup>22)</sup>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종 문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농인 학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에 비하여 기억력이 떨어지고 제1언어를 습득해 본 적이 없는 학습자인 경우가 많아 문법 능력도 발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요인을 적극 반영하는 성인 농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1.3. 정의적 요인

언어 교육에서 말하는 정의적 요인이란 언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속의 정성적 상태에 관련된 인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포함할 수 있지만 보통 제2언어 교육에서 말하는 정의적인 요인은 학습자 개인과

21) 50분 수업에서 보통 3개~5개의 단어를 반복·연습하고 있었다.

22) Skehan(1986)에는 학습자를 3가지 집단의 인지군으로 분류하는데 각 집단별 학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억 중심 학습자: 일반적으로 젊은 학습자이며 문법 이해보다 기억력이 우수한 자, ② 분석적 학습자: 대체적으로 연장자이며 비교적 기억력은 떨어지나 문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 ③ 문법 이해와 기억력 모두를 활용하는 학습자이다.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크게 ‘동기(Motivation)’와 ‘불안 심리’가 있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분명할수록 목표 언어의 습득이 용이하며 자아 중시나 불안 심리가 너무 과중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제2언어 습득에 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농인의 경우는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다음 (11)과 같다.

(11) ㄱ. 피조사자: 배우시는 분들이 이걸 꼭 배워야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가르치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다. **저희는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배우시는 분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필요치 않으시니까** 그분들 바쁜 시간에 꼭 오라고 해서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나. 조사자: 자발적으로 배우시는 분은 안 계세요?

ㄷ. 피조사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단 의사소통이 되게 하자. 근데 한글을 배우는 거는 수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글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수화를 먼저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수화도 잘 안 배우려고 하신다. 일상적인 단어 몇 개만 알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더 깊게 안 배우려고 하신다.**

<제4차 심층면담 전사(홍천군 수화통역센터) 중>

위 (11)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대다수 문해교육 기관에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이었으며,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기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초급 수준의 문해 교육을 받는 성인 농인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 까닭을 말해준다.

그런데 초급 수준에서 한국어와 수화 교육을 이미 받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학습자에게는 학습에 대한 강한 요구가 생기며,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아래 (12)도 이를 보여준다.

(12) ㄱ. 피조사자: 기존의 교재는 농학생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구성이 성인 농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다

소 유치해 보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농인들은 일상의 정보를 국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제9차 심층면담 전사(소보사<sup>23</sup>) 중>

나. 조사자: 야간반<sup>24</sup> 분들은 어찌세요? 학습동기가 확실하시고 뭐…….

피조사자: …… 말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리니까 자꾸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수화를 잘 모르니까 농인들 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고……이분은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와요. ……어느 정도 문장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그 문장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오시고 해서…….

<제2차 심층면담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

(12 가)의 심층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수화를 잘 인지하고 있고, 학교 교육을 통해 이미 한국어를 이미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 경우,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2 나)에서 ‘이분’이라고 지칭된 학습자의 경우, 7~8살까지는 청력이 있어 제1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한 후 청력을 잃게 된 학습자인데 수화로는 청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국어 습득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경우의 사례자이다. 좀 더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은 자발적인 문해교육 참여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도 문해능력의 습득과 함께 성취동기나 자신감 같은 정의적 요인도 증가함으로 알 수 있다.

성인 농인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학습동기는 Gardner&Lambert(1959)의 통합적 동기에 해당한다. 통합적 동기란 학습자가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23) 소보사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졸업말인데 성인 중에서도 농학생과 농청년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공부방, 재수생을 위한 낮 공부방, 청년들을 위한 독서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나이의 학습자들보다 젊으며, 한국어 지식수준과 수화 지식수준이 더 발달한 학습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4)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반은 수준을 고려하여 분반한 것으로 주간반은 상대적으로 초급, 야간반은 상대적으로 중급에 해당한다.

것을 말한다. 이효용(1996)에서도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 통합적 동기가 제2언어 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바 있다.

위 (11), (12)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의 수준과 모국어 체계 정립에 따라 학습 동기의 유무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농인 성인의 초급 학습자들의 제2언어 및 제1언어 습득을 유도할 만한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일정 수준이 되어 학습자들의 통합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문해교육이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들의 동기가 형성되었을 때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정의적 요인으로 자아 중시(self-esteem)와 자기 억제(inhibition)'도 중요하다. 자아 중시란 자신감이 제2언어 습득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자기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기 억제는 자신의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 언어습득에서 이것이 강하면 자기 방어 수단으로 모어를 사용하려하기 때문에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된다.

성인 농인 학습자의 경우, 수업관찰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농인의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농인 사이에서 자신이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고 판단하면 자아 중시의 경향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습자들에게 수화 설명을 통해 도움을 준다거나 수업과 관련한 소재로 자유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다음 (13)은 청인에 비교하여 성인 농인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할 수 있는 면담 결과이다.

- (13) ㄱ. 피조사자: 제가 학창시절부터 수화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만나게 되었던 농학생들이 환경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농정체성은 자신의 의사소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수화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농학생들은 수화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컸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제9차 심층면담 전사(소보사) 중>

ㄴ. 피조사자: …… 농책을 읽다 보면 농문화 중심, 건청인 문화 중심,

중간적인 문화 사고 중에서 청인들하고 자기를 보호하려  
면 점점 자랄수록 청소년 때까지는 난 왜 청각장애를 입  
어서 청인 부러워서 점점 어차피 그게 안 되면 그래  
뛰 난 청각장애인데 뭐 어쩔 거야 이런 자기 문화에  
대한 우울감이랄까 폐쇄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제2차 심층면담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

위 (13)의 면담 내용에서 성인 농인은 어렸을 때 장애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구분 짓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 농인이 자신을 청인에 비교하였을 때에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청인과의 비교보다는 성인 농인 사이의 상호 비교 및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집단 안에서 형성된 자아중시 요인을 극대화시켜 교육 시키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역제의 심리 역시 중요한 변인이다. 수업관찰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화를 사용하여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3가지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수업 전사 자료 형식으로 제시하면 (14)와 같다.

(14) ㄱ. 교수자: (<가위> 지화 시연)<sup>25)</sup> (학생 4 지목) <가위><sup>26)</sup> <수화>  
<무엇>?

학생 4: **대답 못함**

<제2차 수업 관찰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초급 수업<sup>27)</sup>) 중>

ㄴ. 학생 4: (판서) 금방 따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교수자: (판서) 따는 → 탄

학생 4: (칠판으로 나가서 교쳐 썼으나 지움)

25) ( )의 표시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26) < >의 표시는 수화 발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7) 학습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50대~70대였으며, 그들의 수화 실력은 대체로 낮았다. 나중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학력이 전무한 경우의 학습자들이었다.

<제3차 수업 관찰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급 수업) 중>

ㄷ. 교수자: <현금은 어떻게 수화합니까?> <현금입니다.> <천원>  
<이천 원> <만원> <오만 원> <자 그런 걸 우리가 현금  
이라고 합니다.>

학생 : <이 수화가 됩니까?> <처음 보는데>

<제5차 수업 관찰 전사(서대문농아인복지관 초급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14ㄱ)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응대하고 있다. 한국어에 익숙지 않으면 모어인 수화를 사용하여 답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몰라>라는 수화로 응대하며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우라 할 수 있다. (14ㄴ)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학습자의 경우로 목표 언어인 한국어가 맞지 않을 때,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다가도 애써 부정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 (14ㄷ)의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이지만 (14ㄱ)의 학습자에 비해 수화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학습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묵묵부답이나 <몰라> 같은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서 수화에 기대어 질문을 하며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4ㄷ)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청인의 제2언어 습득 상황에서 도 많이 보이는 자기억제 유형이다. 그러나 이런 수화 사용은 한국어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한국어 습득 자체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태도에 비하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자기억제는 어느 경우이든 목표 언어 습득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성인 농인 학습자의 경우 모어인 수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어 문해교육 과정에서 수화 사용의 범위나 방식에 제한을 주어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3.1.4. 사회문화적 요인

이흥수 외 역(2007)에서는 문화란 뿌리 깊은 행동 및 인식 양상의 집합으로서 제2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인 동시

에 문화 역시 언어의 일부라고 지적함으로써 언어와 문화를 상호 불가분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에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고정관념, 태도, 제2문화 학습, 사회·정치적 고려’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가 있다. 사회적 거리란 한 개인이 접촉하게 되는 이질적인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근접성의 거리를 말한다. Acton(1979)는 사회적인 거리를 올바르게 측정하려면 화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거리(perceived social distance)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라 성인 농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거리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성인 농인 스스로 농인 사회 및 청인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15) ㄱ. 피조사자: 재미도 그렇고 **농아인들이 은근히 폐쇄적**이라서 특히 뭐 같은 농인들끼리도 싫은 사람은 완전히 막 상하 어 른이라도 싫은 사람은 딱 싫은 것도 이고 **특히 청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감이 없으면 자기얘기 잘 안 하거든요.**

ㄴ. 피조사자: 야간반 분들 중에는 **같은 농아인들끼리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ㄷ. 피조사자: 오히려 야간반은 조금 뭐 제가 수업을 쪽 해도 서로 이해하고 또 배우는 분 중에서도 **잘 수화를 가르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눈치껏 다른 분들 설명해주고 해서 또 도와주고 하는데 같이 계시면 훨씬 좋죠.**

<제2차 심층면담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

대체로 성인 농인들은 자신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면 농인이든 청인이든 관계치 않고 폐쇄적인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15 ㄴ, ㄷ)에서 보이듯 농인끼리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자신의 집단과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진다.

이러한 점은 수업관찰 조사에서도 관찰된다. 하나는 교수자의 말에 집단적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뒤쳐지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 간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예를 들면 뒤쳐지는 학습자를 위해 스스로 보조 교사 역할을 자처하는 학습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Acton(1979)에 따르면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들은 스스로 두 언어문화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rown(1980)도 ‘최적 거리 모형’(optimal distance model)을 제시하며 제2언어 학습에서 두 문화 간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홍수 외 역(2007)에서는 이를 “문화적 기반을 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언어 문화와 목표 언어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특정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때이든 언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농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농민이 속한 농사회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청인이 속한 한국어 문화와의 상대적 거리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2. 성인 농민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본 절에서는 앞 3.1.에서 분석한 성인 농민의 언어습득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볼 것이다. 다양한 학습 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교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할 것이다.

#### 3.2.1. 성인 농민 학습자를 위한 단계별 교재 구성

현재 성인 농민 대상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은 대체로 40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들도 많았다. 게다가 이들은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문해교육 교재는 상황적 읽기 과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황적 읽기 과정 모델이란 한국어 읽기 교육 모델의 한 종류인데,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문자, 즉 단

어들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더 큰 단위들인 구, 절, 문장으로 확대하여 살피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도 이러한 단계별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8)</sup>

(16) 단계별 상향식 교재 구성

교육단계		[초급]	[중급]	[고급]
교육내용	학습단위	단어 ⇨	문장 ⇨	텍스트
	학습요소	기초어휘 (성분, 조사, 어미) ⇨	확대문 (내포/접속, 전제/함의) ⇨	실용문/ 예술문
	텍스트유형	일상생활 가정/학교/ 이웃/시장 ⇨	사회생활 병원/은행/ 주민센터 ⇨	전문분야 신문, 잡지, 시, 소설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교재의 구성 시 고려할 또 다른 하나는 반복적 구성이다. 심층면담 조사나 수업관찰 조사에서도 성인 농인들의 언어교육에 반복적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관찰 조사 자료를 보면 실제 초급 수업의 경우에서도 교재의 구성과 상관없이 이미 반복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50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보통 3개~5개의 단어를 반복하여 학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단어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중급 수업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항목 하나를 반복하여 수업하거나<sup>29)</sup> 주제와 관련 되어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수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30)</sup> 교재 구성 단계에서 이러한 반복적 학습이 충

28) 성인 농인 문해교육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단계별 구성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 외(2014b)의 ‘수어기반 문해교육 지원체계 조사 및 설계’의 5장 수어기반 문해교육 단계별 교재 및 프로그램 기본 설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29)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의 중급 수업의 경우, ‘꾸며 주는 말’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수업을 60분 동안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법 항목으로 따지면 ‘관형사, N의 N, V-는/A-ㄴ/은, V/A단, V-ㄹ/을’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을 60분 수업에 한 개씩 제시하여 완전하게 인지하고, 반복 량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0)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의 중급 수업의 경우, ‘슈퍼’를 중심 화제로 하여 그와 관련된 단어를

분히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원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매번 다른 것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앞에서 나온 것을 다른 단원에서 다시 노출되도록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16)의 초급 단계 교재를 구성할 때 문법요소의 교육 시 조사를 교육한다면 조사의 반복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1과(주격조사 ‘이/가’) - 2과(목적격조사 ‘을/를’) - 3과(서술격조사 ‘이다’) 등의 순서로 단원별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3과에서 1과에서 배웠던 주격 조사를 다시 한 번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을 두어 교재를 구성할 수 있다.

### 3.2.2. 취미활동과 연계한 문해교육

일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청인 성인이라면 만족감이 떨어질 법한 학습 활동(단어와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 활동, 과제 달성 후 포도알 스티커 붙이기 등)이 성인 농인 대상 학습에서는 의외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설명하는 면담 자료가 있다. 다음 (17)이 그것이다.

(17) 조사자: 뭔가 어르신들도 감각을 일깨워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네요.

피조사자: 네, 그 이야기예요. 구조화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31) 자기가 뭘 잘 하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학습이  
되는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 단계를 간단하게라고 한  
번씩 거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2차 심층면담 전사(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중>

여기 (17)에서 말하는 구조화된 교육이란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습 단계 또는 학습에서 사용되는 여러 활동 유형, 평가 유형 따위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에

---

한국어로 제시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수화로 자유 발언하는 형식으로 5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

31) 한국어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농인은 대부분 고령의 무학력자 또는 저학력자라는 사실은 이미 앞(3.1.1.)에서 살핀 바 있다.

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인지와 더불어 학습 경험 그 자체를 인지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인 한국어 학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문해교육을 취미와 연계하는 교육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단어 교육을 하면서 ‘쓰기 활동’을 서예 교육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 물론 그럴 경우 학습되는 단어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학습되는 단어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는 비교가 불필요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밖에 비슷한 활동으로는 ‘독서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동시에 문해교육 학습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이나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한국어와 수화로 표현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취미 활동과 연계하는 방법들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자체의 재미를 느끼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미와 관심은 결국 학습의 성취동기가 되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2.3. 수화 기반 한국어 문해교육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에서 제1언어인 수화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문해교육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본고의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3.1.2. 인지적 요인 참조) 제1언어는 제2언어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제1언어가 갖추어지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는 실질적 시각 자료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인지에 바탕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인지 과정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수행된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국립국어원 외, 2014b)”에서도 수화 기반 교육의 필수성과 문해교육에서 수화 병행교육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학교 교육을 경험한 농인과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무학자의 농인



위 (18)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수화 코너와 영어 코너가 분리,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화를 제2언어 교육에 활용하되 상시적인 병행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인 학습자 간 협력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수화에 대한 인식을 제2언어에 전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수화가 어떻게 제2언어 습득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나카지마 카즈코(2012)는 수화 그 자체에 대한 높은 인식이 일반적인 언어의 속성 즉 메타언어로서의 속성을 체험하게 하여 제2언어의 읽기와 쓰기 습득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한다. 농인 대상 교육에서 농인 학습자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화를 통한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결과적으로 제2언어 습득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이렇게 수화를 기반으로 하거나 수화 교육과 병행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농인 사이의 소통을 높이고 한국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바로 문법식 수화의 필요성이다. 문법식 수화는 간혹 한국어의 간섭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수화로서 농인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것, 잘못된 것,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인에게 제2언어인 한국어를 교육할 때 문법식 수화는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농식 자연 수화의 사용이 익숙한 농인에게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를 교육할 때 한국어와 자연 수화의 중간 단계로서 문법식 수화를 활용한다면 한국어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면서도 자신이 사용하는 수화에 기반한 제2언어 습득이 한층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2.4. 시각자료에 대한 재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자 하는 성인 농인 중에는 수화가 제1언어로서 확고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수화조차 활용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수화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시각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는 가능한 한 많은 사진 및 그림 등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할 때도 시각 자료는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각 자료라 하더라도 학습 대상자가 성인 농인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농인이 시각 자료를 이해하는 방식은 청인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농인에 맞는 자료 선정이 중요하다. 수업관찰 자료(완주군 수화통역센터 초급반 자료)에서는 동일한 시각 자료라 하더라도 농인 학습자의 경우 청인이 인지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는 교재나 교구에 제시될 시각 자료는 농인의 입장에서 원형적인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가 성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성인으로서 일반적인 인지 및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교육 내용이 초급 수준이라 해도 아동을 상대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시각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인 농인 학습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재나 교구에서 활용하는 시각 자료를 선별할 때는 농인에게 원형적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자료의 하나로서 Gore&Gillis(2004)가 개발한 “조작적 시각 언어 방식”(Manipulative Visual Language)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교재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각 문장의 구조를 색깔이나 모양별로 다르게 하여 교재에 싣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소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언어의 어순이나 그 밖의 변화를 주어 언어를 교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습자의 시각을 활용하는 특이한 문자 환경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교재에 노출시킴으로써 같은 시각 언어인 수화와 비슷한 언어 체계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 3.2.5. 학습자의 성취동기 부여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문해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성인 농인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4)</sup> 특히,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도 모르지만 제1언어인

수화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가족과 주변인의 도움으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오고 있으므로 문해교육은 물론 수화 교육의 필요성도 그다지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학습자에게 수화는 물론이고 제2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의 의지가 없고, 성취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학습 후의 효과를 언급하기보다는 학습 활동 안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 활동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활동이 문해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학습을 위한 보조 자료로서 학습자 집단이 직접 쓴 글이나 학습자들이 실제로 겪은 일화 등을 활용하여 읽기 교재의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비록 처음에 단순한 동기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취동기가 부족했던 학습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취동기도 높아진다. 이는 앞 (3.1.3. 정의적 요인)에서 확인했듯이 수화 실력과 한국어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좀 더 잘하려는 성취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는 청인과의 소통이라는 통합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로서의 한국어 문해력 학습의 경우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한국어 문해능력을 갖춘 성인 농인에게 이러한 통합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청인과의 교류를 담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는 문해교육 중급 단계에서 농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청인 한국어 교수자를 활용한다든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내용을 읽고 댓글을 쓴다든지 직접 청인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청인 문해교육 기관과의 연계도 좋은 방법이다. 청인의 경우에도 문해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의 성인이므로 서로 학습한 내용을 교류하는 것 역시 상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

34) 성인 농인의 경우 스스로 학습의 성취동기가 부족한 점이 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 3.1.3. 정의적 요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청인과의 소통이라는 학습 동기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습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3.2.6. 사회적 거리 조정 노력

농인들은 대체로 청인과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비교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인 집단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성인 농인 학습자들은 오랫동안 청인들과 접촉 없이 살아왔거나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접촉하며 살아온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문화에 대해 상당한 거리를 느낀다.<sup>35)</sup> 또한 농인은 자기와 같은 농사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관계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거리감을 느낀다. 이러한 청인 또는 농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 인식은 무엇보다 그들과의 소통 욕구를 줄이고 언어의 학습 의지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농인의 사회적 거리 인식을 바꾸어 줄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농인과 청인 사이 나아가 수화 언어문화와 한국어 언어문화 사이의 사회적 거리는 매우 멀다. 두 사회문화 사이의 교류와 소통도 매우 부족하다. 한 지역 내에 공존하고 있으나 섞이지 못하고 따로 작동하는 두 사회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3.1.4.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 달성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36)</sup> 성인 농인 학습자에게 제2언어인 한국어를 교육한다고 해서 제1언어를 버리고 한국어만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언어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바탕하는 제2언어 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목표어인 한국어를 교육한다고 하여 교육의 내용을 반드시 한국어의 언어적 요소에 맞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농문화의 특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교재에 담을 수 있다. 농문화의

35) 성인 농인 학습자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 3.1.4. 사회문화적 요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36) 3.1.4. 사회문화적 요인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청인 문화의 동질감을 높이는 교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인 사이의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해를 돕는 내용도 필요하다. 농인 간 가지는 이질감을 줄이고 상호간의 협력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제한적 접촉을 통해 사회생활을 해온 성인 농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경우 농인과 청인뿐만 아니라 농인 사이의 사회문화적 거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두 사회 간에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육 내용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 4. 결론

본고는 6개 성인 농인 대상 문해교육 기관의 전문과 10명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와 총 7차례에 걸쳐 490분(청인 수업 1차례, 120분 포함)의 수업관찰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어 문해력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농인의 언어습득 특성을 분석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바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습득 과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 성인 농인의 언어습득 특성

- ㄱ. 언어습득 시기(나이): 40대~80대의 고령층 성인 농인. 평균 50대 이상.  
⇒ 제2언어(한국어) 습득의 부정적 요인
- ㄴ. 인지적 요인: 한국어 문법 능력 거의 없음. 제1언어(수화)도 모르는 경우 존재함.  
⇒ 기억력 등 인지 능력 부족으로 소량 어휘 반복 수업 집중.
- ㄷ. 정의적 요인: 성취동기 부족하고 자기 억제 심리 강함.  
⇒ 성취동기 생기면 통합적 동기 보임. 칭찬받으면 자아중시 보임.
- ㄹ.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어 사회문화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크게 느낌.

⇒ 적절한 사회적 거리는 제2언어 습득의 긍정적 요인이기도 함.

위 (19)를 보면 현재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농민들은 상당수가 고령의 노인인 경우가 많아 인지적 요인이나 정의적 요인 역시 문해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성인이라는 특성 게다가 많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수화 문화와 한국어 문화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성인 농민 대상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 ㄱ. 교재 구성: 성인 농민 학습자에 맞게 단계별로 구성해야 한다.  
⇒ 상향적 읽기 과정 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반복적 구성.
- ㄴ. 교육 활동: 취미와 연계하는 문해교육 활동이 효과적이다.  
⇒ 학습자체의 흥미를 높이고 관심분야에 대한 기회 제공.
- ㄷ. 교육 방식: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문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이중언어적 교수를 통해 자연스러운 제2언어 학습 유도.
- ㄹ. 교육 자료: 성인 농민에게 전형적인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조작적 시각 언어방식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교수.
- ㅁ. 성취동기 부여: 지속적 교육을 통해 자발적 성취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 청인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통합적 학습 동기 유지.
- ㅂ. 사회적 거리 조정노력: 두 언어문화 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농문화의 특성 및 청인 문화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

성인 농민은 농아동에 비해 오랫동안 한국어 언어문화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어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해교육에 참여하려는 욕구나 그 성취동기는 오히려 매우 낮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농민으로서의 무력감, 청인 문화와 소통의 어려

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맞는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제공은 이들에게 농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청인의 한국어문화와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보·변정현(2006), 『노을즈의 성인교육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 교육사상과 실천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26집.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a),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b),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및 문해교육 지원 체계 기초 조사』.
- 국립특수교육원(2011), 『특수교육실태 국제동향』, 극동디앤씨(주).
- 권대봉(1999), 『성인 교육 방법론』, 학지사.
- 나카지마 카즈코 저, 이미숙 외 역((2012), 『이중 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미국·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과컴.
- 박남수(2005), 『이중문화 접근에 기초한 청각장애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재 개발』, 『언어치료연구』 제14권 제4호.
- 박덕유(2010), 『국어 교육의 전략과 탐색』, 박문사.
- 박덕재·박성현(2011),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박이정.
- 서광진(2013),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농인과 외국인의 한국어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52호.
- 원성욱(2013),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 윤병천·김병하(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제5권 1호.
- 윤석민(2012), 『농인의 국어교육론 정립을 위한 제안 -농인의 국어 인식 및 국어 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성』, 『건지인문학』 8.
- 윤석민(2013), 『농사회 용어의 정리 방향』,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 정리 토론회 자료집』.
- 윤석민(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제안』,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 윤석민·서광진(2014), 『농인의 문해력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1집.
- 이흥수 외 역(2007),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제5판)』, 피어슨에듀케이션

코리아.

- 이효웅(1996),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의 분류」, 『한국해양대 어문연구』 6.
- 전영주(2010), 「COLT 수업관찰 분석법을 통한 학교 현장의 의사소통중심 영어 수업 분석」, 『영어어문교육』 16-3.
- 정운기·김병하(2005), 「농아동의 이중언어접근법에 관련된 제반요소 탐색」,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6권 4호.
- 최성규·김기생(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6권 1호.
- Acton, W.(1979),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Perception of Difference in Attitude」,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Brown, H. D.(1980), 「The Optimal Distance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terly 2』.
- Gardner, R. C. and W. F. Lambert(1959),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 Gore, J. C. and R. Gillis(2004), 「Manipulative Visual Language: A TOOL TO HELP CRACK THE CODE OF ENGLISH」, Laurent Clerc National Deaf Education Center, Gallaudet University.
- Skehan, P.(1986), 「Cluster Analysis and the Identification of Learner Types」, In Cook, V. (ed.) *Experimetal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Mental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 농인 문해교육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성인 농인에게 한국어 문해교육을 실시해 온 전문가와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성인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에게는 심층면담 조사를 하였고,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을 관찰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이중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관여하는 요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에 언어습득 시기,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성인 농인의 학습자의 특성을 각 요목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 농아동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점에 주목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제언은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체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재, 교육 활동, 교육 방식, 교육 자료, 학습 동기, 사회적 거리와 같이 학습자와 직접 관련을 맺는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주제어: 성인 농인, 문해교육, 이중언어 습득, 학습자 특성, 해석적 연구, 심층면담 조사, 수업관찰 조사

【Abstracts】

## An Interpretive Study for Establishing a Literacy Education System for Deaf Adults

Yuon Soeg-min & Go A-r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a literacy education system for Deaf adul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ampled exper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had executed Korean language literacy education for Deaf adults, and surveyed the current state of literacy education for Deaf adults. Specifically, experts were surveyed through in depth interview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the observation of classes.

Whe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was focused on factors related to learners' characteristics in bilingual education or second language education. The factors were divided into the time of language acquisition, cognitive factors, affective factors, and socio cultural factors, and Deaf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each of the facto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the directions of literacy education programs for Deaf adults were suggested. Particularly in accordance with learners' characteristic, this study took note of differences from literacy education programs for Deaf childre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iteracy education system for Deaf adults, furthermore, the suggestions covered all

areas directly related to learners including textbooks,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 methods, education materials, motivation of learning, and social distance.

Key words: Deaf adults, literacy education, bilingual acquisition, learners' characteristic, interpretive-research, in-depth interview, class observation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